

## 이른아침예배

인도 : 박세훈 목사

예배를여는말 .....	인도자
신앙고백 .....	사도신경 .....
찬송 .....	510장 .....
기도 .....	최종명 집사
성경봉독 .....	창세기 22:13~19 .....
찬양 .....	새벽찬양대
설교 .....	『모든 것을 드릴 자가 세상에 주는 복』 .....
기도 .....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
찬송 .....	304장 .....
축도 .....	설교자

### 510장 - 하나님의 진리등대

- (1)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비추세
- (2)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없는 가고 찾는 무리 많구나
- (3)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 선에 건져라
- 후렴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 내어 살리세

### 304장 -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 (1)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사 하셨네
- (2)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의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 (3) 하늘은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 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 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 후렴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 <창세기 목상 본문 및 설교 제목>

요일	본문	제목
6월 12일(화)	창 22:1~12	모리아, 하나님의 승리
6월 14일(목)	창 22:13~19	모든 것을 드릴 자가 세상에 주는 복
6월 15일(금)	창 23:1~20	마침내 땅을 얻다!

6월 15일(금) 기도 담당 : 이윤식 집사

##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18년 6월 14일(목)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품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그를 참된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조금씩 빚어가 주셔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성취되는 날들 이루어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어둔 세상 가운데 소망의 빛과 축복을 전하는 참 성도의 삶을 살게 이끌어주옵소서.

온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기대하지 못했던 북미 정상회담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평화의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을 빼앗는 전쟁의 무기들은 폐하여지고, 한민족 가운데 평화와 기쁨의 날이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한 세력과 시험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여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 사랑과 화평이 온전히 임하는 날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세워진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자기의 유익이 아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기며 일하게 하옵소서.

새문안교회의 머리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며 지난 긴 역사 동안 하나님 앞에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상학 목사님을 통해 허락하시는 비전과 소명을 온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함께 나누게 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뤄가게 하옵소서. 새 성전 건축의 과정 하나하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길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묶어주셔서 귀한 성전을 주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영장리 추모관 공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영혼의 참된 안식처로 온전히 준비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 주님의 뜻을 소명으로 품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복음의 일꾼이 된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옵소서. 눈물과 땀의 수고를 귀히 여겨주시며 주님 앞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게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한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되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